

발표 대본

소개(간단하게 이름 소개하고 발표한다고)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만들게 된 사이트 소모아는 도서 판매 및 ebook 열람에 기반을 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트렌드가 된 웹소설 열람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도서 사이트에 웹소설 기능을 추가한 이유는 도서를 구매할 시 배송되는 시간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시간의 무료함을 바로 볼 수 있는 웹소설로 채운다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개발 초기에 사용한 IDE는 vscode였다가 이클립스를 활용하게 된 이후부터 바뀌서 진행했습니다. DB의 확인과 테이블 추가 등등의 데이터 작업은 MySQL을 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WEB을 본격적으로 만들면서는 html, css, javascript, jQuery, jsp, ajax, mybatis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만든 작품의 프로토타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은 모바일 환경에서 메인 페이지가 어떻게 나타났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모습이고 오른쪽은 pc 환경에서 보이는 index page입니다. Index page에 대한 구성은 곧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ERD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작품에서 사용한 테이블 목록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이 ERD입니다.

인덱스 페이지에 사용된 기능들에 대해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우선 홈페이지 내에서 구석구석 이동할 수 있는 메뉴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도서 검색창이 있고 여기서 검색된 것들을 기반으로 아래 실시간 검색어를 순서대로 1위부터 10위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벤트를 소개하는 대형 슬라이드가 있고 마지막으로 게시물 정렬을 통해서 베스트셀러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Index page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할 기능은 메뉴바, 검색창, 실시간 검색어와 게시물 정렬입니다.

우선 게시물 정렬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서와 웹소설로 나누어 가장 많이 팔린 순서 혹은 많이 열람된 순서로 정렬하였고 최근 신작 도서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르에 따라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웹소설은 탭을 이용한 방식으로 맨아래에 정렬하였습니다. 정렬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렬을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 클릭하면 해당 링크에 저장된 컨트롤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컨트롤러의 페이지 지정이나 자료를 받고 가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쇼데이터 메소드를 정리한 파일들을 모아 놓은 커맨드 패키지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된 자료를 받거나 보내줘야 하는데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패키지입니다. 이 다리를 통해 dao파일들에서 원하는 데이터 처리 메소드를 받아옵니다. 그렇게 DAO 파일들을 모아놓은 DAO패키지로 이동하면 DTO들을 모아놓은 패키지와 함께 mapper로 이동하여 데이터 처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정렬이 이루어지며 이것은 게시물뿐만이 아닌 이 작품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든 기능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기능은 검색창입니다. 검색창에 검색하고 싶은 도서나 웹소설의 제목 혹은 그 제목이 다 생각나지 않을 때 일부를 검색하면 해당 DB에서 표지, 제목, 작가 등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시로 밤을 검색해보면 mapper에서 이 밤이라는 글자가 searching에 들어가고 이 과정을 통해 이런 모습으로 검색이 완료되어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실시간 검색어입니다. 이 기능은 앞에서 소개한 검색창 기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검색창에 특정 단어들을 검색하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많이 검색된 순서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Date와 calendar등의 클래스를 이용해 설정하였고 검색할 때 미리 DB에 저장을 해놓고 이것들을 이용한 쿼리를 이용해 빨간 원 안에 있는 검색어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내에 다음과 같은 스크립트를 삽입하여 좁은 공간에서도 위로 움직임을 주고 총 10개의 실시간 검색어를 다 볼 수 있게 하였고 그 결과 이런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게시물 정렬 중에 아직 소개해드리지 않은 tab을 이용한 정렬입니다. 보이시는 이 화면에서 현대판타지 탭을 보고 싶을 때 그것을 누르게 되면 탭 전환 스크립트를 이용해 바뀌는데 다음과 같은 쿼리로 해당 장르를 인식하여 DB를 불러오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장르만 바뀐 채로 소설이 재정렬됩니다.

앞에서는 많이 팔린 도서 혹은 많이 열람된 웹소설을 정렬하였다면 지금은 베스트 목록이 아닌 도서

들도 보여지는 게시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DB를 불러오는 방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으니 어떤 기능을 하는 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은 도서 게시판인데 종이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하여 테이블식으로 나열하였고 장바구니에 도서를 담고 바로 결제버튼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ebook 게시판은 표지와 제목, 작가명만 간단히 나열하였고 게시판 최상단의 버튼들로 장르별 ebook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제목이나 표지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세부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는 말 그대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 소개할 기능은 리뷰게시판과 장바구니 및 결제 기능입니다. 리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별점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처럼 선택한 별의 개수만큼 숫자로 가져와서 저장해주었고 이것을 이용해 insert 쿼리로 보내서 리뷰를 저장하면 이렇게 작성된 리뷰가 보이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장바구니 기능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도서게시판에서 장바구니를 클릭했을 때 Ajax를 이용하여 작업을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책이 장바구니에 추가되었다는 알림이 뜨게 됩니다. 세부게시판에서는 수량을 지정해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결제버튼을 누르게 되면 장바구니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내용을 모두 확인한 뒤 결제버튼을 누르면 결제 정보를 insert하고 수량을 도서DB에 update하며 장바구니 정보를 delete해서 초기화해주고 결제 완료된 내역을 마이페이지에 이렇게 select하여 보여주게 됩니다.

앞에서 도서 정렬기능을 보였다면 이번엔 웹소설 정렬기능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박스는 모든 웹소설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네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박스이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원하는 소설의 장르 및 제목을 검색하여 보여줍니다. 또,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소설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은 웹소설을 정리해주는 것으로 이것 이외에도 신작에 대한 게시판 등을 정리한 공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료베스트와 신작, 그리고 무료베스트와 신작을 정리했습니다.

상세페이지에서는 해당 소설의 모든 화가 다 있으며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처럼 소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추천게시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된 추천글들을 모아서 보여주고 이렇게 장르선택이 가능하고 추천순으로 보기를 누르면 추천순, 여기서는 좋아요 순으로 바뀝니다. 클릭하여 세부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에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버튼과 해당 작품으로 갈 수 있는 버튼이 존재합니다. 좋아요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의 ajax를 통해 json타입의 데이터를 받아와서 좋아요 개수를 올려줍니다. 반대로 한 번 더 누르면 좋아요가 취소되고 이 전 좋아요 개수가 출력됩니다.

이 다음은 서비스 센터를 간략하게 만들어보았습니다. 클릭하면 다양한 문의 제목을 볼 수 있고 문의 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1대1상담도 할 수 있는데 자신이 문의한 내용과 답변을 볼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가져와서 볼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문의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고 작성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통해 저장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원이입란은 ajax를 이용한 아이디 중복확인, 주소를 입력해주는 api 사용 그리고 회원가입 스크립트 이렇게 크게 3가지의 기능이 있고 여기서는 ajax를 이용한 아이디 중복확인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인 부분입니다. 초창기에 만든 거라 간단하게 jsp페이지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로그인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고 로그인이 됩니다.

지난 6개월동안 교육과정을 거치는 동안 제가 이전에 혼자 공부했을 때와는 좀 더 다른 재미를 느꼈고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하여 좋은 결과가 나와서 보람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능력있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 교육과정이 끝나도 스스로 꾸준히 공부하며 능력향상에 매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길 지원자였습니다. 이것으로 작품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